



아시아는 지금 '송중기 없이'

'균함도' 현지 박스오피스 상위권 랭크

홍콩·미얀마 등 식민지 아픔 공감대 '태양의 후예'로 다진 한류파워 입증

연기자 송중기가 홍콩과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다시 한 번 공략 중이다.

송중기는 주연 영화 '균함도'(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가 최근 홍콩과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권에서 개봉함에 따라 자신의 현지 명성을 재확인하며 관객을 만나고 있다.

'균함도'는 이달 10일 홍콩에서 개봉했다. 이후 13일부터 16일까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전 세계적 인기를 모으며 역시 홍콩 1위에 오른 공포영화 '애나벨: 인형의 주인'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균함도'는 이달 초 태국과 미얀마에서 각각 선봉했다. 지난해 공유 주연 '부산행'에 이어 한국영화가 현지 관객을 만나기는 1년 만이다. 태국의 경우, 3일 개봉해 첫 주말 박스오피스 3위(박스오피스 모조 자료)를 차지했다. 자국 영화의 비중이 높은 태국에서 얻은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으로는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미얀마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은 2차 대전 및 식민지로서 피해를 겪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균함도'가 그려낸 이야기와 맞물려 주목하게 한다. '균함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하시마섬에 강제징용된 이들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 미얀마와 홍콩 역시 오랜 세월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았다. 식민의 아픔은 겪지 않았지만, 태국은 일본과 긴 시간 협력적 관계를 맺어온 나라여서 관객은 영화를 통해 그려진 한·일 과거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관심의 밑바탕에 한류스타 송중기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미 지난해 '태양의 후예'로 아시아권 톱스타로 떠오른 그의 위상이 여전히 관객의 관심을 이끈다. 드라마를 통해 얻은 인기는 송중기와 함께 역시 아시아권에 이름을 알린 소지섭과 황정민이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점도 아시아권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송중기가 영화 '균함도'를 통해 아시아권 팬들을 다시 만나고 있다. 10월31일 송혜교와 결혼을 앞둔 그는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 차지한 확고한 위상을 재확인하며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김재중, 일본서 사업가 변신

최근 도쿄 쇼핑몰에 가방브랜드 입점 의류부문에 한해 대표로 경영 참여도



김재중

연기자 김재중이 일본에서도 사업가로 변신했다.

김재중은 최근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케이브(KAVE)라는 이름의 쇼핑몰에 자신의 가장 브랜드를 입점했다. 동시에 쇼핑몰 내 의류 부문에 한해 대표로서도 이름을 올려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 첫발은 최근 신주쿠의 베르사르신주쿠센터 파크에서 열린 개업식 참석이었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맨홀: 이상한 나라의 필' 촬영으로 일정이 빽빽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냈다. 이날 김재중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패션업계에 도전하게 됐다"며 일본 진출에 의미를 부여했다. 2014년 국내에서 '물타'라는 가방브랜드를 론칭했을 당시에는 아티스터리로서 디자인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김재중은 이번 입점을 통해 국내보다 활동 영역을 넓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줬다. 사실 주된 역할은 자신이 만든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지만 의류 부문의 대표로서 또 다른 1명의 대표와 함께 쇼핑몰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은 좋아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며 "압박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비즈니스로 따지면 성장하는 게 첫 번째이지만 무엇보다 고객이 즐거운 기억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중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업식에는 1000여명의 팬들이 일찌감치 몰렸다. 레드카펫 행사에는 아이돌그룹 B.A.P 방용국,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용 등이 참석했다. 벡스미 기자 bsm@donga.com

중국 '한류 통제' 심상찮다

다방송 관장 '광전총국' 관리강화안 공개 예능·황금시간대 드라마·게스트 관리대상

중국의 방송 등 언론과 문화행정 및 심의를 관장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예능프로그램 및 드라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담은 내용을 방송사 등에 통지했다. 특히 광전총국은 그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이번 통지의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공포 열여름은 한류시장에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겨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지속적으로 종합 예능프로그램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및 황금시간대 드라마, 프로그램 진행자와 게스트의 관리를 각각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두 두 개항으로 이뤄진 이번 통지문의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손승욱 중국 통신휘원은 "예능프로그램의 과도한 상업화 방지, 간접성 강조, 스타 우상화 배척, 인기스타의 예능프

로그램 참여수와 시간대 엄격 통제"라고 설명했다. 또 "원칙상 해외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새로운 동향은 아니지만 이들 현지 당국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등장한 이른바 '한한령'으로 가뜩이나 닫힌 중국의 한류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 방송 예능프로그램 포맷의 수출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그 흔적조차 없이 중국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를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드로 인해 냉각된 한·중 관계가 다소 해소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한국 문화 콘텐츠나 스타가 현지 시장에 진출해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지만 한류와 관련한 시장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성만 더하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비거리의 상식을 깬다, 日本 명품 "마코토(MAKOTO)" 드라이버론칭!

깨짐없는 경이로운 반발계수(0.91)로 환상적인 드라이버샷 연출

특수 고강도 고반발 소재로 중무장, 480cc 대형헤드 장착으로 관성모멘트 향상, 뛰어난 관용성으로 30~40야드 거든!

공인규와 비공인규 드라이버의 기준치 골퍼들의 욕망은 동반자를 인도하는 비거리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최근 이런 심리를 노린 고반발클럽들이 쏟아져 골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고반발 드라이버의 반발계수(COR-Coefficient of Restitution)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의 허용치인 0.83을 초과한 드라이버를 말한다.

수년간의 시행착오가 없으면 제작이 어려운 0.91의 반발력 고반발 드라이버는 '꿈의 드라이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마추어에게 환영 받는 드라이버다. 그렇다고 골퍼들을 제 조하는 여러 브랜드들이 선별적 제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반발력을 높이려면 기술력과 공법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스프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헤드 페이스를 얇게 만들수록 파손의 위험이 커져 사후서비스(A/S)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큐이스트사는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로 비공인규 드라이버의 선두주자로 강하게 말한다. 깨짐 없는 기술력으로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코토' 드라이버가 반발계수 0.91의 초고반발 드라이버로 국내 런칭한 것이다.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 초고반발, 초고강도 헤드 탄소 '마코토' 모델의 반발계수는 0.91의 초고반발이다. 특수 고강도 고반발 소재를 사용해 초고강도 헤드를 탄생시켰다. 페이스 무게를 골고루 배치하여 비거리와 관용성이 탁월하며, 세미 샬로우페이스로 깊은 무게중심이 백스핀을 최소화하여 비거리가 탁월하다. 또한 페이스 주변 무게를 줄여 주고 스피드를 증가시켜줌으로써 스윙타에 스핀을 손실 없이 볼에 전달한다.

최상의 관성모멘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480CC 헤드제작 헤드크기가 커질수록 관성 모멘트는 향상되며 그만큼 뛰어난 관용성을 만들어 낸다. 이런 이유로 미국골프협회(USGA)는 2003년부터 드라이버 크기를 460CC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들을 위한 규정이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헤드 무게가 무거워져 아마추어 비거리가 이기지 못하는 무게라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마코토' 프리미엄 드라이버는 480CC로 제작했지만 무게 중량을 중전460CC대의 무게로 유지시켰다. 또한 헤드 디자인의 품격화로 헤드 크기에 비해 무게가 가볍다. 480CC의 놀라운 관성모멘트는 법안 셈이다.

도레이 carbon cross fabrics system fit 테크놀로지 사프트링 드라이버의 최대 효과를 위한 비거리 향상 및 최적의 방향성 유지에 목적을 두었으며, 사프트 하단쪽에 대형헤드에 맞는 강성설계를 도입하여 임팩트존에서의 가속감과 고탄성 소재의 높은 탄성복원력 결합으로 최대의 비거리 향상을 보장한다. 또한 저중량드라이버 사프트링에서 저하되는 방향성 유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프트 상단부분에 480cc대형헤드에 적합한 하이카본 크로스원단 소재를 적용해 드라이버 사용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최적의 방향성을 유지한다. 이번 론칭된 '마코토' 전용드라이버 사프트링 개발설계된 제품으로 헤드와의 완성도를 최대한 system fit 설계된 모델로 최대의 비거리향상, 최적의 방향성유지, 관용성확대의 3가지 완성도를 높은 사양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완성시킨 모델이다.

다루기 쉬운 세미 샬로우 페이스와 더욱 더 가벼운 페이스 면적 주발골퍼들이나 시니어는 다루기 쉬운 샬로우 페이스를 선호한다. 페이스는 어렵

긴 하지만 볼이 묵직하게 나가는 장점을 지녔다. 이런 이유로 페이스의 장점을 페이스에 접촉시켜 세미 샬로우페이스를 실현시켰다. 종전 모델보다 편안한 샷을 연출을 도와준다. 또한 세미 샬로우페이스는 미스샷을 최소화하여 줄여 주며 스윙스팟 또한 넓어져 정타의 확률을 극대화 시켜준다.

호쾌한 비거리와 경쾌한 타구음 '마코토' 반발계수가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타구음을 잡아주는 소음장치 또한 필요하다. 타구음의 경우 떨어지는 듯한 소음으로 인해 인도어나 실내연습장에서 샷타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마코토' 드라이버는 과학적 설계방식으로 경쾌한 타구음을 실현하였다.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는 전용드라이버를 연습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연습해도 된다 하였다.

구입으로 나만의 비밀 병기 하나 구입 하는게 좋을 듯 싶다. A/S는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 한다.

론칭기념 50점 한정 할인판매 실시 일본 큐이스트사와 국내 유통파트너가 독점계약해 론칭하게 된 '마코토' 프리미엄 드라이버를 소비자가 1,800,000원 판매가를 론칭기념으로 한시적으로 690,000원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최고의 사양과 최고의 반발계수(0.91)로 중무장한 드라이버



모델명	R	SR
480cc 대형 헤드	9.5/10.5	9.5/10.5
투톤 컬러의 크라운	47g	51g
위험위험 세미샬로우 페이스 면적	45.75	45.75
도레이 특수 크로스 카본 사프트링	480cc	480cc

손에 익히는 경험 그림장학

MADE IN JAPAN

정가 180만원 **특가 69만원** (한시적 판매)

- 전국 지역 대리점 모집 -

홈페이지 www.OPTOP.co.kr 문의전화 1544-2749